



데자뷰



신 동 욱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우리는 가끔 꿈속에서 겪은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거나, 또는 경우를 체험할 때가 있다. 이 때 야릇한 감흥을 느끼게 되는데, 불어로 이를 ‘데자 뷰(deja vu)’ 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 한국이며 미국, 영국 등지에서 이런 감흥을 느낀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는, 지금이 꼭 1997년 3월 당시와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엔저 추세며, 반도체 값 하락, 미국 금리인상, 노사관계 악화, 정치지도력 부재 등등이 그 때를 빼 닮았다는 얘기다. 여기서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이며 고유가까지 겹쳐 더욱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혹자는 이를 ‘IMF 구제금융 3년 차 증상’ 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최근 증시과열이 마치 1929년 대공황 전야 같든지, 또는 1630년대 유럽 톨립 투기 붐 당시와 같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겉으로는 고속성장이며 경제회복, 급여인상, 투자수익 증대 등으로 좋긴 한데, 속으로는 모두가 좌불안석인 것이다. 이런 불안의 원인은 무엇이고, 여기서 초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선 불안의 원인은 자신에게 통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소득의 절반 안팎을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수출시장이 닫히더라도 10% 정도밖에 타격을 입지 않는다면 훨씬 여유를 갖고 초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또 외채가 많은 탓으로 경제의 피라고 할 수 있는 금융 부문이 거의 전적으로 외국인 손에 달려 있다.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 있어서도 수출품의 사실상 대부분을 외국에서 사 오는 에너지와 부품,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한마디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 경제는 외국에 종속돼 있어, 많은 일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불안감이 높다.

따라서 우리가 평상심을 찾아 모든 일에 좀 더 초연해지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욕심을 줄이든지, 실력을 높이든지다. 그러나 욕심을 줄이는 것은 불가하다. 자칫 인도네시아 꼴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방 경제에서는 욕심을 줄이면 줄일수록 외부중속이 심해져 기존의 우리 것까지 모두 내줘야 한다. 즉 현실적으로는 외길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력을 높일 수 있나. 이는 헤아릴 수도 없다. 하지만 세 가지만 언급하자면 이렇다.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돈 가치다. 정부가 한화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다. 돈은 모든 가치판단과 보관의 기준이다. 하지만 이 돈은 정부가 너무나 적은 비용으로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 또 돈을 찍어내는 만큼 국민재산은 정부 것이 된다. 그래서 그리하고자 하는 유혹이 크다. 작년 말 정부 일각에서 화폐개혁주장이 나온 것도 이런 유혹을 반영한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한국은 에콰도르가 된다. 지금 한국의 부실한 금융산업을 살리는 길은 국민 일반이 채권 사기를 주식 사듯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자면 돈 가치 안정이 필수적이다. 일본 중앙은행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압력과 일본 정부로부터의 비난, 그리고 심각한 실업난 속에서도 엔화 가치를 적극 사수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 이제 또 한번 돈 가치가 흔들리면 한국은 달러라이제이션으로 직행한다. 여기서 이득 보는 자는 미국뿐이다. 소탐대실, 국민에게서 몇 푼 뺏으려던 정부는 정권과 국가경제를 통째로 미국에 내주게 된다.



둘째는 공공행정을 시급히 정보화하여 공무원 수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이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클레프토크라시(Kleptocracy), 즉 부패관료제를 없앨 수 있다. 둘째 정부재정을 건전히 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셋째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 요즘 언론계에서 인터넷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기생충적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면 혼자서 몇 분만에 해결할 것을 남이며 부하에게 부탁해 자기 시간은 물론 남 시간까지 낭비하고 아울러 전화료며 팩스종이, 여직원 노동 등까지 죄다 낭비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껌데기는 양보하고 알맹이를 차지할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 주력수출품은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배, 철강, 유화제품 등이다. 한결같이 브랜드 로열티가 없는 커머디티(commodity)성 물건들이다. 게다가 알맹이는 남의 것을 죄다 갖다 써서 실속이 없다. 실속 없이 재주만 부리면서 세상 욕 혼자 다 얻어먹고 있다. 회사 직책으로 치자면 술 상무 꼴이다. 이제 알맹이다. 국내 제지업체들이 다수 외국인에게 경영권이 넘어가자 나라 다 팔아먹는다고 개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회사는 살았고 수출은 늘었다. 일자리도 유지하고, 무역수지도 개선하는 일석이조였다. 자동차 산업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밖에도 '사회적 IQ'를 높이고 덩치보다 속도를 중시하는 것도 시급하다. 하여간 결론은 세상일에 초연하자면 실력을 쌓는 길 외에 왕도가 달리 없다는 것이다. ☺